

목포시 도심 도로 교통체계 뚝뚝해진다

관광객 1000만 시대 맞아 20억 들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로전광 표시시스템 등 설치 7개 구간 30km 교통체증 해소

목포시 도심부 주요 도로의 교통체계가 뚝뚝해진다.

18일 목포시는 올해 들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오는 4월 해상 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선포 등으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올해 목포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수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기 갖추어진 도로와 교통시설을 어떻게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목포 실정에 맞는 교통정보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해 됐다"며 "ITS가 구축되면 교통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당초 올 7월 준공 목표지만 공기를 가능한 앞당겨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는 4월까지도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능형 교통체계는 목포시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인 고하대로(10.5km), 백년대로(4.3km)를 비롯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영산로(3.8km), 산정로(3.3km), 용당로(2.9km), 녹색로(3.3km), 양율로(2.7km) 등 총 7개 구간 30.8km에 걸쳐 구축된다.

이곳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교통량을 모니터링 하는 CCTV가 6개소에, 교차로 감시카메라는 9개소에 각각 설치된다.

또 '도로전광 표시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대형 도로 전광판(도형식)이 4개소에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량을 수집하는 '교통량 수집시스템'도 8곳에서 운영된다.

여기에 '첨단 신호시스템'으로 해상케이블카 진입 구간인 고하대로, 해양대항로, 양율로 등 6개 구간 15개소에 무선 LTE 온라인 신호제어기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도심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을 집중 관리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고, 혼



목포시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시대로 진입하는 백년로 등 주요 7개 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백년로 전경.

잡지역에 대한 사전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게 목포시 교통행정과의 계획이다.

아울러 앱 등을 통한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가 제공돼 관광객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익산국도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정보연계도 가능해져 교통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미

래지향적 교통도시(C-ITS)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자 우회도로 기능을 완벽히 제공해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근본 취지"이라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켜 시민은 물론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남만항구 목포' 브랜드 디자인 A안(왼쪽)과 B안

'남만항구 목포' 브랜드 디자인 '윤곽'

2가지 안 압축...21일 최종 시안

목포시가 지난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선정한 브랜드 '남만항구 목포'에 대한 디자인 윤곽이 드러났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1월 '남만항구 목포' 브랜드 기본형과 응용형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업비 2200만원을 들여 디자인 개발 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열린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목포 브랜드 디자인은 A안과 B안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두 디자인에 대해 용역사는 "역사의 도시, 낭만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 목포의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춰 컨셉을 도출했다"면서 "디자인은 목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와 인지도도를 높여주는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A안은 추사 김정희의 예서체로 쓴 '2국방'에서 '강력한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획'의 일부분을 따와 '목포'라는 글씨를 합성한 것으로 역사와 예술성이 강조된 안이다.

또 B안은 문화 예술의 도시와 낭만의 도시에 포인트를 둔 시안으로 정지

하고 딱딱하지만 중간에 포인트를 뒀고, 주변의 작은 그래픽 요소는 낭만항구에 잘 어울리는 맛을 담은 그릇, 작은 배, 물결 등을 상징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남만항구'가 주요 포인트인데 너무 '목포'에 치우쳐 차별화된 낭만항구 개념반영이 미흡하다(백동규 시의원)는 주장과 함께 '유달산-목포대교 등 목포를 상징하는 시각적 효과 표현이 부족하고(김오수 시의원), 색상 배합이 독창적이지 못하다(김수미 시의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식 시장은 "A안의 목포라는 글씨 써는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독특한 필체로 호감이 갈만큼 독창적인 것이 장점인 반면 B안은 약간 산만하지만 다양한 의미가 부여돼 젊은 층이 선호할 것 같다"면서 "'A안의 목포'와 'B안의 낭만항구'만을 합쳐 새로운 C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A안의 '목포' 글씨체를 그대로 살리고 B안의 '남만항구' 캘리그래피에 약간 고딕개념을 가미시켜 변형한 뒤 이를 조합한 C안(최종 시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종 시안은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돼 3월부터 대내외 홍보에 새로운 디자인이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 또 3년 연기

목포시의회 변경동의안 가결

목포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대양일반산업단지 대출금 상환기일을 또 다시 2022년 4월로 3년간 연장하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사진)은 "변경동의안은 오는 4월 2일로 다가온 대출금 상환기일을 오는 2022년 4

월로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정례회 때 지방채 1300억원 발행과 상환기일 연장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빛 내서 빚을 갚는 격'인데다가 부채비율이 상승해 긴급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무산됐다"면서 "이후 시의회 차원에서



은행 차입선 변경을 위해 시금고인 농협과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규 대출로 본다는 해석이 나와 차입선 변경이 어렵게 됐다"고 밝혀 의회차원에서 노력이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130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는 안 되고 있으나 일단 한숨은 돌린 만큼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며 "집행부가 상환 기일 연장을 위해 어려운 국내·외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기존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춘 점은 높이 살만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긴급 안전감정이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전이 상정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당일까지 의원들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특위활동이 법률에 보장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직권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청년점포 '빌리지 오쇼잉' 영업 시작

목포시·보해양조 공동 지원

목포시와 보해양조(주)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청년점포 '청년 빌리지 오쇼잉'이 19일 창업식을 갖고 영업에 들어간다.

'청년빌리지 오쇼잉'은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지역 사투리를 접목해 만든 청년점포 네이밍이다.

청년점포는 기존 원도심 상권과 차별화된 브런치 레스토랑, 핸드메이드 소품, 영상촬영 스튜디오, 건강카페 등 총 10개로 저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영업 전략을 가지고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창업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사업은 점포인테리어와 공동마케팅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보해양조(주)에서는 3.3㎡당 월 1만원의 임대료와 저렴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 일자리정책팀장과 관계자는 "원도심 보해양조 상가 청년점포 창업지원이 청년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보전·활용·투기 방지 등 담겨 건축주 목포 3년이상 거주

목포시가 전국적인 관심대상지역으로 부상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근대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정한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목포시는 "관련 조례안을 지난 14일 문화재청에 검토 요청하고 15일 문화재청 용역업체 자문 컨설팅을 받아 18일 정부 입법지원센터의 조례입법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단 회의의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오는 3월 열리는 목포시의회 346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물론 지원 대상 및 기준, 투기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원 대상 공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건물도 등록문화재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대상 건물을 확정하는데 이어 건축주에 대해서도 목포시의 거주를 3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토지매입과 보수정비 대상 선정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근대역사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지원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를 억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근대 역사문화공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

존 관례에 따라 도시발전 사업단장이 맡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거나 민간위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1단계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의 22%인 110억원이 투입된다. 근대건축자산 30곳을 매입하는데 45억2000만원, 등록문화재를 보수에 24억원, 정밀실측과 학술조사 등에 41억원이 배정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젯토(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방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방절개를 젯토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방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방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젯토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방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